

I 국제 산업보건 동향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WEBSITE 발표자료 'Social Polish Highlight No.8〉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예방활동 및 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보장기구의 역할 발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는 사회보장정책의 우선순위로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점차 확대되는 사회보장의 활동영역을 바탕으로 예방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은 근로자 개인, 기업, 사회적 차원에서 비용-효율적 방법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또한 국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영역에서 건강 증진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보상(산재보상 등)인의 건강상태와 보상비용 지출액 간의 상관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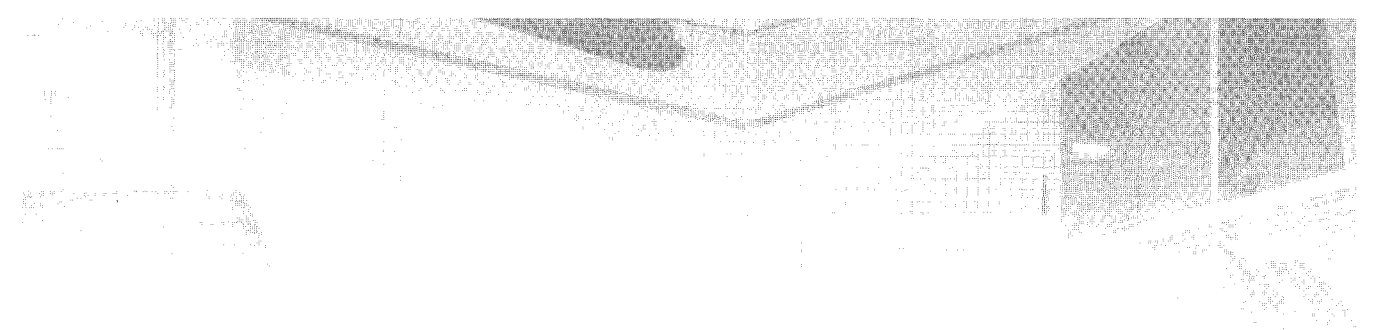
-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본 근로자 건강 보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 경제활동 기간의 연장
- 신규 발생하는 장애연금 지출액 절감
-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기회 확대
- 의료보험비용 및 유급병가 비용 절감
- 적극적 고용정책 확대
- 사회생활과 육아의 책임을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함

- 대표적 사회문제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기관의 건강증진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그간 유지되었던 경제활동 인구나 비경제활동 인구의 수적 균형이 깨질 위험이 있다.

■ 사회보장기구의 역할 확대

- 예방에 대한 적극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사회보장기구의 사업목표 및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식의 업무진행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에 형성된 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사회보장기관의 업무영역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가입자에 보건관련 지식 전달, 다양한 의료보험사간의 건강증진활동 통합 및 건



강 불균형 해소 등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사회보장기구가 예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

- 국가보건의정책 및 목표를 구성하는 정부정책에서 사회보장기관의 역할이 주요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일부 선진국에서처럼 사회보장기구의 예방활동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는 건강증진 활동에 보험료 납부액 유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정지원 등의 유인책을 통해 개인의 건강증진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여, 독일에서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제공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환자부담 보험금이 인상된다.

■ **예방활동에서 예방문화로의 전환**

- 과거 사업장에서 전개된 조기개입 예방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인해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예방 원칙(조기개입을 통해 원치 않는 상황의 발생을 피함)이 사회보장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 예1) 고용상태인 사람에게도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실직을 예방
 - 예2) 빈곤가정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여 어린이가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예방
- 다양한 영역의 예방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예방문화 확산으로 ISSA는 “역동적 사회보장(Dynamic Social Security)”의 목표를 달성하고,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실행 확산을 도모하며 경제성장 및 사회진보라는 목표 달성에 사회보장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출처〉 http://www.issa.int/content/download/74962/1400130/version/19/file/2issa_sph_08.pdf



미국 매사추세츠 로웰大 Lowell Center, 산업안전보건 증진방안 제시

미국 Lowell Center for Sustainable Production은 산업안전보건 문제와 동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또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하여 제안하였다.

■ 미국 매사추세츠 로웰大 Lowell Center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보고서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성, 건설업 근로자의 안전, 바닥마감작업(floor finishing)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화재 위험성, 전자레인지용 팝콘 제조 근로자의 디아세틸(diacetyl) 노출과 폐질환 위험성, 염화메틸렌에 대한 안전규제 수립 및 식품가공공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였다.

■ 사례1 :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성

-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1억 명의 유럽인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고통 받고 있으나 이 중 40%는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매년 130-200억 달러의 직접비용(산재보상 비용)이 발생하며 유럽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으로 매년 GDP의 2%에 달하는 직접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9년 미국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 취약 직종 및 손상부위별 평균 근무손실 일 수는 다음과 같다.

근골격계 질환 취약 직종군	총 발생 건 수		손상부위별 평균 근무손실 일 수					
	발생 건수	근로자만 명 당 발생률	전체	등(허리)	어깨	팔	손목	무릎
운송업	66,240	85	12	8	30	27	12	30
제조업	42,720	49	13	5	19	15	18	23
의료·건강관리 산업	29,640	110	6	5	8	8	6	11
건설 및 시추산업	28,880	53	11	7	30	45	27	26
설비·유지보수업	27,540	61	12	6	19	15	12	52
모든 직종	317,440	33	10	6	18	17	1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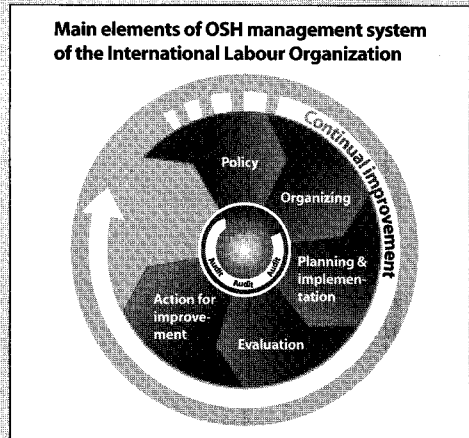
- 개선방안: OSHA 300 log(업무상 부상 및 질병 기록)에 근골격계 질환을 추가하여 관련정보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정보접근성을 재고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 사례2 : 건설업 근로자의 안전

- 미국에서는 매일 3명의 건설업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의 8%를 차지하는 건설업에서 전체 산재사망자의 22% 발생(사망률: 근로자 10만 명당 9.6명, 2008년 미국 노동부 통계 자료)하고 있다.

건설업 재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해의 종류는 추락(떨어짐), 낙하·비래(날아와 맞음), 협착·감김(끼임), 전류 접촉(감전)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근로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다음과 같다.

- 폐암: 석면취급 근로자, 용접공, 목재취급 근로자 등
 - 규폐증, 석면폐증, 중피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COAD) 등
 - 피부질환: 시멘트 및 콘크리트 취급 근로자, 도장공 등
 - 신경계질환: 도장공, 용접공 등 유기화합물 및 금속에 노출되는 근로자(납, 크롬 등)
 - 근골격계 질환
- 미국 건설업 근로자의 25%를 차지하는 히스패닉계 근로자는 산재 취약계층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OSH-MS)
 - 건설업 위험성예방설계(CHPtD)활동 지속적 전개
 - 건설업 종사 이주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 교육, 지원 강화
 - 산재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원인분석 정보 제공에 있어 언론의 역할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CHPtD: construction hazards prevention through design

〈출처〉 <http://sustainableproduction.org/Lessons.php>

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